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⑨ 권지품 제13

여인에게 수기

본장(本章)에서는 석존에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수기를 주고 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리푸트라(舍利弗) 존자(尊者)를 비롯하여 성문(聲聞)으로 불리는 많은 직제자(直弟者)들에게 차례 차례로 미래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부처가 될 것을 보증해 왔다. 그 가운데는 석존이 태자로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태어난 라훌라의 밀행(密行)에 대해 도칠보화여래(跳七寶華如來)의 수기를 준 것도 포함돼 있다. 라훌라는 석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노력을 한 것을 '밀행'이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차례 차례로 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緣)이 깊은 석존의 양모(養母)와 지난날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직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은 이러한 근친자(近親者)들도 석존의 뒤를 좇아 출가하여 오랫동안 수행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석존은 이러한 근친자의 생각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우선 젊어서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쇼다라가 "석존께서는 미래 성불을 보증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자, 이를 아신 석존께서는 "그대는 장래에 백 천 만 억의 여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차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해 축복받은 땅인 선국(善國)에서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이름은 수많은 반짝이는 깃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라 할 것이다"는 수기를 내리신다.

이와 같이 '권지품'은 '제바달다품 제12'에서 설한 여인성불(女人成佛)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석존의 출가 이전의 양모와 부인에 대한 기별 즉 미래 성불의 보증이 밝혀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마하프라자파티는 석존의 이모로서 탄생이래 계속 석존을 양육한 분이며 또한 라훌라의 어머니 야쇼다라 비구니는 지난날 석존이 태자로서 카필라바스투에 있었을 때의 아내였다.

지금까지 석존은 이러한 가장 가까운 근친자

직제자→악인→여인→근친에 수기

"누구나 成佛"…皆成·일승사상 기조

부터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구해 온 직제자들에게 수기를 주고, 그런 다음 비로소 근친자에게 수기를 줄 기회가 왔으리라고 본다.

즉 보살들이 미래의 악세(惡世)에서 나름대로 '인내(忍耐)'를 가지고 〈법화경〉 전할 것을 맹세한 정경(情景) 뒤에, 석존의 양모(생모의 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가 근심 어린 얼굴로 석존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러자 석존은 "아직 저희들에게는 장래에 성불을 이룰 것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나는 모든 성문들에게 장차 성불함을 보증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신 후, 다시 구체적으로 "미래의 세상에서 6만 8천 억의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대법사(大法師)가 된다"고 밝히고, 또 함께 있는 6천인의 비구니에게도 동시에 '법사(法師)'가 됨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점점 보살의 수행을 쌓아가서 이를 완성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의 눈에 기쁨을 준다는 일체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가 될 것이며, 이 일체중생희견여래와 6천의 보살들은 서로 차례차례 이어가며 수기하고 각기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신다.

그 때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 성불의 보증을 주지는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섯 사람의 직제자의 대표를 최초로 하여 차례차례 기별을 주어온 석존은 최대의 악인인 제바달다에게 기별을 주는 것에 의해 어떠한 악인에게도 성불이 허락됨을 설하고, 이어서 여덟 살된 용녀의 성불에 의해 여인성불을 밝힌 연후에 비로소 근친자 중의 근친자인 길러주신 어머니와 지난날의 부인에게 수기를 설한 것이다.

여기에 석존의 위대한 교화방식이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기별은 최초에 널리 주어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수기를 밝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석존은 빼어난 직제자들, 오랫동안 석존을 따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수기하고, 다시 악인·여인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의 지침을 우선하고 최후에 근친자에의 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법화경〉은 평등대혜(平等大慧)라는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개성사상(皆成思想)을 비롯한 일승사상(一乘思想)이 기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탐욕에 휘둘리는 생활을 하지말고 마음다스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무구스님.

가까이서 뵌

무구스님 (과천

과천 경마공원 인근에 있는 유덕사는 에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울창한 있다. 무구(无求)스님이 지난 69년 지어 고 있는 유덕사는 5평 남짓한 법당과 조름하기 그지 없었다.

11일 유덕사로 무구스님을 뵈러 갔을 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매일 네 번 기다. 새벽예불후, 아침공양후, 점심 먹고 스님께 삼배를 드리려는데 1배만 하라로 답례를 하셨다.

"내가 부처"…염불삼매

물질에 치우친 삶 수행에 장애

우리마음 정화되면 우주가 청정

불교계 최대 명절인 지난 부처님오신날, 유덕사에서는 여느 초파일 때처럼 등값을 받지 않았다. 작은 절이지만 초파일때는 등을 달려는 신도들이 꽤 온다. 스님은 미리 등을 600개 정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신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등을 달게 한다. 정 그냥 가기 미안해하는 신도들은 형편대로 등값을 법당 탁자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스님, 절에서는 초파일 등값으로 1년을 산다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부처님 생신날 불제자로서 경축하면 됐지, 등 팔아 돈벌이 하는 날인가요? 부처님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덕사의 등은 모두 똑같은 크기다. 불자들이 부처님 생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새롭게 발심하며 등을 밝히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다.

스님은 49재가 들어와도 얼마 내라고 지정해 주지 않는다. 자기 집의 재정상태를 자기가 아는 만큼 성의껏 내면 된다. 절에서는 천도만 정성껏 해 주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 모시고 수행만 잘 하면 되지 돈 관리 같은데 마음 쓰면 수행에는 멀어지는 법"이라는 방침따라 유덕사에는 불전함도 없다.

그런데 허름한 집에서 30여년을 사셨는데 중창할 생각은 안 하셨을까.

"이곳에 들어온 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지만 나는 외양 잘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크고 화려한 절에서 도리어 그 운영 때문에 소임자들이 쩔쩔매는 것도 많이 봤고… 사실 개울가에 앉아 있으면 어떻고, 절벽끝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수행을 하려는 마음만 굳으면 장소의 좋고 나쁨은 문제가 안돼요. 요즘 한국 승가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한데 그것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야 수행이 됩니다."

스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집을 늘여서 보다 큰 집,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꿈이지만, 막상 큰 집에서 살면 그 집을 유지하거나 채우기 위해 급급해 하고 신경 쓸 일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늘 부족함과 불만을 갖고 있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고만 있어 더 어려운 곳에 손을 뻗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가진것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더 허전한 것도 물질위주의 그릇된 가치관과 소비 위주의 잘못된 대중문화의 세뇌를 받아 자꾸 밖으로만 찾고, 많이 소유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서가 아닐까.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무구스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보자.

"사람들은 보통 '이것만 되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저것만 성취하면 행복해 질텐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도 또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 조사들이 다른 곳에서 찾지말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한 겁니다."

스님은 또 덧붙인다. "큰 스님들이 발이 닳도록 다녀 시주를 모아 절을 잘 지어놓거나 중창해 놓았지요.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절에 사는 사람들이 수행을 잘 하면 훌륭한 수행처지만,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도리어 부처님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한다면 그곳은 마구니소굴밖에 안되는 거예요."

올해 세수로 일흔 넷이지만 나이가 드니 젊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을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하신다. 해방무렵 문경 김용사에서 열일곱의 나이로 출가한 무구스님은 김용사 강사인 은사 화산 스님에게 경전도 배우고 선방에서 안거도 여러 차례 났다.

"얼마 전에 수좌가 한명 찾아왔어요. 염불은 안되니 참선하세요 그럽디다. 나도 과거 선방에 다닐 때는 참선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닙니다.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만 해야지 염불하면 성불 못한다 하는데 뭐든지 지성으로 해 삼매에 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수승하다 저것이 더 낫다 하는 분별심 가지고 수행하면 안됩니다."

과거 전생부터 참선을 많이 해 어느 정도 익어진 사람은 참선으로 견성하기 쉽지만 업이 중한 사람은 참선삼매에 들기 힘든 만큼 염불로 업장을 녹인 다음 참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일러주셨다.

"예전에 내가 선방 다닐 때 선방에서 조실스님이 결제법문과 해제법문은 하셔도 참선할 때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자상히 일러주지 안 했어요. 그래서 (참선수행이) 어렵습니다. 업이 두터우면 아무리 참선 하려고 가부좌 틀고 앉았어도 망상만 떠올라요.

또 해제하고 다른 절에 갈 경우가 있

◇유덕사의 반찬을 책임

어요. 그곳의 큰 스님이 잘 살펴서 근기에 맞는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그 스님이 꿰뚫지 못하고, 너 무슨 화두를 가졌느냐 물어보거든. '무' 자 화두니다 하면 이놈아 그 화두 갖고 안된다하시며 다른 화두를 줍니다. 발아드는 사람은 큰 스님의 지시니 (그 화두로 금방 성불할 줄 알거든. 그래서 마삼근 화두를 붙잡고 한철 나게 되지요. '마삼근…' 하지만, '무' 자 화두가 저절로 들려, 마삼근으로 돌리는데만 한 철이 가요. 한철 그냥 좇아다니는 거야, 자기 머리에 착 잡히는 것이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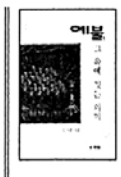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오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